

교 회 목 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총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빌립보 1:21)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4 총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장선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 신령한 예배 |

심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주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도 변함없이 격월로 지키게 되고, 매 예배시간 복음 중심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6개의 찬양대가 한 달 전부터 예배를 위한 찬양을 준비하여 드리는 일과 금요찬양 집회시에 찬양과 말씀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는 은혜도 계속될 것입니다. 특별히 금년의 예배찬송은 찬송가 25장 "면류관 가지고"입니다. 평강의 왕, 왕 중의 왕이신 주께 면류관을 돌리자고 하는 권면으로 시작하는 25장 찬송은 스스로 비천한 땅에 오신 주님이 가장 천한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점에서 "고난의 신비"를 몸소 보여 주신 찬송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예배 시작 15분 전까지 예배실에 착석하여 "배부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올해 드려질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2005년 제1차 성찬식이 오늘(2월 1일) 예배부터 5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 민족 복음화 |

금년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현대인들을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정확히 전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금년에는 1:1.1 전도를 진행합니다. 이것은 1년에 1인이 1명씩 전도하여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물량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26개 전도회를 중심으로 1년 내내 교회 전도 전도에 집중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전도위원회에서는 전도를 위해 구체적인 지도를 만들어 전도에 총력을 쏟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단기선교를 통해서 전 교인들이 영혼 구원의 열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까운 우리의 이웃부터 찾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민족과 우리의 이웃을 향한 복음의 빛, 복음의 메신저가 되도록 이웃의 문을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 세계 선교 |

최근 동남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생각할 때 세계선교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더 빨라져야 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생명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2004년에는 2027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절실한 지역에 헌진인 선교사와 단기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더욱더 각오를 다지며 금년에 진행될 단기선교에 139개 지역장들을 중심으로 전 성도가 하나 되어 집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북방 지역에서부터 남방 산호섬이 있는 지역까지 선교의 지경을 넓혀나가려고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매월 2주전에 걸쳐 진행되는 선교훈련(CMTC 훈련)과 각종 훈련들을 더욱더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의할 것은 우리의 지난 몇 년간의 선교경험을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데로 나아가는 복음의 나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2차 CMTC 훈련이 다음 주월(9월)에 있습니다.

| 천국일꾼 양성 |

주님께 쓰임받는 천국일꾼을 위한 말씀 훈련이 각 구역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소망부에서부터 영아부까지 23개 교회학교 부서가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배우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2회 실시되는 계절학교를 통해서 총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교사들은 "교사 감동회"에 참여하여 미리 말씀을 배우며 복음에 기초한 계절학교 준비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다음 주월(9월, 16일)부터 교사 감동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천국일꾼을 돕기 위해서 매년 2회씩 장학생을 선정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에는 491명에게 약 5억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복음 위에 바로 선 천국일꾼들을 돕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진실로 거듭나 믿음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일꾼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월(9월)부터 겨울계절학교 교사 감동회가 있습니다.

| 이웃 사랑 |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도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85년부터 시작된 총현 복지관을 통한 이웃 사랑의 실천은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신지체 부자유자들에게 단순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복음을 함께 제시하며 그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이 주님임을 깨닫게 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를 위한 실버타운 및 양로원 건립을 위한 준비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쌀과 부식으로 매월 약 204세대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제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겨울과 여름에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아낌없이 돕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웃사랑의 실천은 금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과 복음과 함께 사랑을 베풀어서 육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돕는 일에 전심을 다할 것입니다.

DISREGARDING YOURSELF

"⁽¹²⁾Not that I have already obtained [it], or have already become perfect, but I press on in order that I may lay hold of that for which also I was laid hold of by Christ Jesus. ⁽¹³⁾Brethren, I do not regard myself as having laid hold of [it] yet; but one thing [I do]: forgetting what [lies] behind and reaching forward to what [lies] ahead, ⁽¹⁴⁾I press on toward the goal for the prize of the upward call of God in Christ Jesus. ⁽¹⁵⁾Let us therefore, as many as are perfect, have this attitude; and if in anything you have a different attitude, God will reveal that also to you; ⁽¹⁶⁾however, let us keep living by that same [standard] to which we have attained." (Philippians 3:12-16)

Most people hold themselves in high regard. They desire recognition and respect for their endeavors. After Paul met Jesus Christ, he never acknowledged his accomplishments. Instead, he disregarded himself, and confessed his imperfections. Perfection is a goal that believers do not reach until the end of their lives. Until death, our mental competence and thought processes are actually not too great. Scientists believe that even the best of human brains only operate at ten percent capacity. As such, our present thinking is not very deep, and our conclusions are even shallower. Our bodies also lack perfection. Even though the world strives for perpetual youth, human bodies are not ageless; they grow old. They suffer from wear and tear, diseases, and eventually die out. Thankfully, believers are filled with the fruit of righteousness, which comes through Jesus Christ, to the glory and praise of God (see Phil. 1:11). God designed this special fruit to grow and prosper, not wither and die. Unfortunately, many Christians screw it up. "The worries of the world, and the deceitfulness of riches, and the desires for other things enter in and choke the word, and it becomes unfruitful" (Mk. 4:19). This happens because they regard themselves, rather than disregarding themselves.

Every single human on the face of this world needs Jesus Christ in order to bear righteous fruit. He is the only one who can guide you through this life. You need to pray, "Teach me Your way, O Lord; I will walk in Your truth; unite my heart to fear Your name" (Ps. 86:11). Jesus warns all followers, "Remember Lot's wife" (Lk. 17:32). Lot's wife worried about her family, she wondered what was happening to her house, animals, and other belongings. God told her not to turn around, but she did. She thought her concerns were greater than God's were. If you regard the pleasures of the world, your own thoughts, or even the little, stupid things in life, you will end up barren, fruitless, and without hope. Most Christians will agree that Paul is a great Christian. He lived for Jesus Christ, and was prepared to die for Him,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Phil. 1:21). Let us look at how he lived and regarded himself after Jesus Christ saved him in Damascus.

Paul ran through life. He disregarded himself because he knew there was no place for believers to rest, enjoy themselves, or find comfort. The Bible says he pressed on, which means he had no leisure time. If you, your family, or church is relaxed and happy, then someone is regarding something. Philippians 3:14 says, "I press on toward the goal for the prize of the upward call of God in Christ Jesus." The devil always tries to attack you. His main job is to destroy you. As such, there is no place for you to relax. You have to press on. You have to concentrate because you must fight the ongoing battles in order to win the war. 1 Corinthians 9:26-27 says, "Therefore I run in such a way, as not without aim; I box in such a way, as not beating the air; but I beat my body and make it my slave,

so that, after I have preached to others, I myself will not be disqualified." No one can afford to waste time. You should never squander the opportunities that allow you to equip the saints for the work of service" (see Eph. 4:12).

Paul forgot his past. He said, "but one thing I do: forgetting what lies behind and reaching forward to what lies ahead" (v. 13). Do you know how many Christian preachers, scholars, and authors talk about how they live and practice faith? Do you realize how many believers advertise their faith? Their objective is to teach you about the things they have done. They recognize, praise, and respect themselves. Look at Paul; he never explained the gospel in terms of what he had done. He always confessed his past sins, and that he was a sinner. He did such great wonders for Jesus, but he never explained about it. In Romans 7:19, Paul says, "For the good that I want, I do not do, but I practice the very evil that I do not want." He admits his mistakes, and further says, "Not that we are adequate in ourselves to consider anything as coming from ourselves, but our adequacy is from God" (2 Cor. 3:5). Too many Christians think they do a good job, not recognizing the Holy Spirit's work. Paul declared, "to me, the very least of all saints, this grace was given, to preach to the Gentile the unfathomable riches of Christ" (Eph. 3:8). Amen. Paul took no credit for any of the work he did for God, instead, he forgot about it because he disregarded himself.

Paul pressed "on toward the goal for the prize of the upward call of God in Christ Jesus" (v. 14). He had aim and purpose because Jesus Christ was his center. The Bible says, "For those whom He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to becom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so that He would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ethren" (Rm. 8:29). Please understand my friend that the mind set on the flesh is death, but the mind set on the Spirit is life and peace (see Rm. 8:6). Paul lived with his mind set on the Spirit. If you say you are a Christian, then you should be living like one, for "the one who says he abides in Him ought himself to walk in the same manner as He walked" (1 Jn. 2:6). What Jesus did, we should do, and more! 1 John 3:2 says, "Beloved, now we are children of God, and it has not appeared as yet what we will be. We know that when He appears, we will be like Him, because we will see Him just as He is. Let us press on toward that day when we will see Jesus Christ face to face.

It is my prayer that you disregard yourself, not counting your deeds. I sincerely hope that every member of Choong Hyun denies himself or herself, takes their cross, and follows Jesus all the way to heaven. You have to walk in His ways, so that you can become like Him, who is Perfect. Disregarding yourself is an important action that keeps you running, makes you forget the past, and press on toward heaven. 🙏

다음주일 설교

자신을 낮추는 신앙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15 **그리스도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빌 3:12-16)



김성관 목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고 찬사를 보내주기를 항상 갈망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단 한 번도 자신이 한 일을 자랑거리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아무 것도 아니라고 여겼고, 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삶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아무리 애써도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사용하는 지능이나 사교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이 뇌를 최대한 사용한다고 해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의 1/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짧고, 우리가 내리는 결론 역시 아주 피상적인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한 것은 우리의 정신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 또한 열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젊음을 유지하려고 온갖 방법을 강구하지만 누구도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모두 늙고 맙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상의 온갖 풍파로 누udge 치를 받아지고, 병에 시달려 궁극에는 죽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사를 돌려 주기 위해서입니다(빌1:11).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의 열매들은 시들거나 말라죽지 않고 건실하게 자라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립니다.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의 열매와 재리의 유흥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막4:19).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의의 열매

여러분이 의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여러분을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시 86:11).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뜻의 처음을 생각하라”(눅17:12). 뜻의 아내는 거주 하나님의 본분을 피하게 된 상황에서도 두근거림과 가족들, 재산을 연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부를 몰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뜻의 아내는 그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관심사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쾌락이나 자신의 생각, 혹은 세상에 속한 아주 작고 하찮은 것들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메마르고 열매 없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고, 그를 위해 죽을 각오도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빌1:21).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자신을 어떻게 여겼는지 살펴봅시다.

뜻대를 향하여

바울은 평생 앞을 보며 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도 안식을 주고 평안함을 만끽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앞을 향해 계속 전진했다고 말합니다. 곧 그에게는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혹은 교회가 느긋하게 앉아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면, 각성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궤도를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은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마귀는 항상 여러분을 공격할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유를 차지할 때가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전투는 끝난 게 아닙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고백을 나누어서는 안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2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게 내 몸을 세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진할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

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 중 이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결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엡4:12)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은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13절)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자나 신학자들, 또 저술가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또 자신의 믿음에 대해 말을 늘어놓고 있는지요.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 광고하고 다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자신이 행한 업적들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목하고, 찬양하며, 존경하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결코 복음을 설명할 때 자신이 행한 일을 빗대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항상 과거에 지은 죄들을 회개하며 자신이 죄인 중에 고수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정말이지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을 위해 대단한 일들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행한 일을 조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롬7:19)라고 자신의 죄성을 인정했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고후3:5).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착각합니다.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였음을 깨닫지 못하고서 말합니다. 바울은 단언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엡3:8). 아멘! 바울에게 있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한 일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모든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낮추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14절)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삶은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삶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롬8:29).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람으로 이끌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롬8:6).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성령님께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음 말씀처럼 살아야 합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기를 내로 자기도 행할지니라”(요일2:6).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아니 그 이상을 행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함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은 있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 대하여 볼 그 날을 바보보듯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낮아지는 일부터

저의 간절한 바람 중 하나는 여러분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행한 일을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만 항상 따라가기를 저는 온 마음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레아 온전하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낮아지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결단입니다. 계속 전진하려면, 과거를 잊고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기려면, 먼저 낮아지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정로 칼럼

정로 칼럼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오진국 (예배위원장)

은총의 자녀들

본질상 진도의 자녀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주님의 귀한 은총이다. 그 은총을 입은 자들이 예배하되 준비된 예배, 신령한 예배를 목적으로 삼는 것은 당연한 모습일 것이다. 우리 교회는 주일 1부에서 5부 예배, 주일 찬양예배, 수요 1,2부 예배 그리고 금요집회와 매일 새벽 기도회가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드러지는 예배를 위하여 예배위원회에서는 매 예배시에 예배식 전체를 돌아보며 정리하며 돕는 예배부, 일년에 일곱 번 행해지는 성찬식을 준비하는 성례부, 편안히 그리고 보다 질서 있게 좌식을 안내하며 교인을 돕는 안내부,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순서를 담당하는 헌금부에서 15명의 정로와 560여 명의 헌신된 일꾼들이 미리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 앞이라는 마음으로 겸손히 수종들고 있다.

성례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례식은 풍성한 의미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 일년에 일곱 번 진행되는 성찬식과 여섯 번의 합송새례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다시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 성찬식을 위하여 성찬식 전날 준비하는 성례부는 성찬 준비 예배를 통하여 말씀 앞에 겸허히 선 후 미리 맞추어줄 먹을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준비된 포도즙을 잔에 부으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까지 계속될 성찬식을 위한 기도와 기대를 놓치지 않는다. 온 성도들에게 배반되는 먹과 잔은 이렇게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성찬을 준비하는 주간에는 더욱 말씀에 집중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되새기며 성찬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새해 교인 이상이면 이 풍성한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다. 많은 회중에게 배반을 하기 위하여 배반위원들이 섬기고 있지만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배반이 시작될 때 미리 기도하여 성찬기가 자신 앞에 왔을 때 시간을 끝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 손으로 옮기는 불안함이 없으면 더욱 좋겠고. 혹 실수로 떨어뜨리는 것을 막고 또 거룩한 성찬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두 손으로 성찬기를 옮겨 주시기를 당부한다.

안내부

교회당 입구부터 빨간 옷을 입은 분들의 옷은 얼굴을 볼 수 있다. 바로 예배위원회 안내 위원들이다. 이들은 예배 30분 전에 모여 기도한 후 정해진 위치에서 교인들을 안내한다.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좌식을 안내하고 환자, 혹은 특별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여 예배가 문제없게 진행되도록 수종들고 있다. 때론 이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왜 저 자리로 가라고 하느냐?' 등 작은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에서 조금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특히 성찬식에 있는 경우 좌식 배치는 전체 예식을 보면서 안내를 하기에도 더욱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교회에는 거동이 불편한 성도를 위하여 휠체어가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예배당에서 생기는 불편성(안경, 개인 성경 등)을 보관하여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하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다.

헌금부

예배시간 말씀을 듣기 전 헌금을 돕는 헌금부는 모두 360여 명의 일꾼들이 수종들고 있다. 1.5부 예배시간과 매달 한 번 있는 헌신 예배시 이들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예배 시작 30분 전에 모여 헌금 가운을 입고 헌금담당 정로님의 기도 후 자신의 자리

에 착석하며 헌금시간에 서로 짝을 이루어 헌금을 수거하며 봉헌을 하고 있다. 절제되고 신속한 행동으로 많은 성도들의 봉헌을 돕고 있다. 교회에서는 예배당 좌석에 항상 헌금 봉투를 비치해두고 있다. 따라서 미리 헌금을 준비하여서 헌금 주머니가 왔을 때 헌금해 주시는 것이 좋다. 지갑을 꺼내고 부랴부랴 이름을 적는 모습이 이제 사라지길 소망한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바치는 시간인데 미리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드러진 헌금은 은행에서 나온 직원을 통하여 입금 처리되며, 특별히 헌금 수거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 보관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를 하고 있다. 영혼을 살리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드러진 헌금이 아름답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예배 15분 전 준비

우리 교회는 예배의 시작 개념이 항상 15분 전이다. 설교자, 사회자, 기도자는 이미 30분 전에 예배 준비실에 모여 기도하며 15분 전에 등단하여 주님의 임재하심을 준비하고 있다. 찬양대와 모든 수종자들도 15분 전이면 정위치하고 있다. 주보를 보면 예배 전 찬양이라는 순서가 첫 순서로 나온다. 그렇다. 이는 매 예배 시간 15분 전에 예배 전 찬양을 통하여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묵상하기 위한 시간이며 실질적인 예배의 시작이다. 따라서 허겁지겁 시계를 보며 뛰어오는 예배자가 아니라 미리 좌석에 앉아 안정된 모습으로 예배 전 찬양에 참여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길 바란다.

신령한 예배

예배위원회에 속한 종들의 준비들을 생각할 때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것이다. 혼허례 예배는 그저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헌금 드리고 말씀 듣기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신령한 예배는 그렇지 않다. 신령한 예배는 준비된 예배요 그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께 가까워감을 나타내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신령한 예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버리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찬양과 감사의 헌신이어야 할 것이다.

절제된 사회와 힘 있는 찬송 그리고 진실되고 겸허한 기도의 순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찬양대의 열광이런 찬양! 그리고 온전히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참 믿음을 소유하며 주님께 향한 헌신의 결단을 드리는 전인적인 예배를 목표로 하고, 이 일을 위해서 예배위원회가 존재한다. 교회 입구로부터 예배당의 조명, 온도, 좌식 안내, 주보 한 장까지 예배를 위하여 준비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섬김이 단지 예배위원회만의 일이 아니라 온 성도들의 섬김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과 다시 오시기까지 하시는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신령과 진전한 예배를 원하시고 그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신령한 예배! 진리로, 영으로 드러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준비된 예배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 직면해서 살아있는 신자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항상 공급해 줄 것이다.

이신동(팀장): 저는 팀원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를 부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부추한 저를 잘 따라 주신 팀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사역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배웠고, 어린 팀원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많은 대화로 서로 더 깊이 알지 못한 것이 제일 아쉬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교지에서

사랑의 대화



정미선(총무): 선교를 가기로 결심한 동기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선교를 다녀 오면 회사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 같아서였어요. 하지만 처음 총무를 맡았을 때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러나 전도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지금은 정리만 돼서 정신이 없지만 여쭙는 많은 것을 얻었어요. 주님께서 제게 기도를 많이 하도록 하셨습니다. 어제는 우리 팀 모두 많은 것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제가 많은 일을 감당하던 팀원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것 같아 혼자 일해야 한다는 것만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해가 생겼던 정도 있었지만 한국으로 돌아오면 더 큰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것 같아요. 대화를 많이 못해서 팀원들의 상태가 어떤지 알지 못한 것이 미안해요.

이광민(회계): 처음엔 경험을 쌓기 위해 출발한 선교였지만 얼마 후 '내 자신이 선교를 통해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어요. 이번 선교를 통해 저에게 있던 많은 의심들이 하나씩, 이 땅의 영혼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엔 적은 믿음 하나뿐이었지만,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해요. 회계라는 직분 때문에 당시 일을 먹었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렇지 만 사업 중에 '주님께서 우리 팀을 사랑하시는 데 왜 서로 오해가 생겼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그 의문을 대화로 나누던 중에 풀렸어요. 그 일들을 통해 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사역 중 확신이 없을 때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나와 말씀하시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 후 기뻐하며 평안을 느꼈어요.

박현구(부총무):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기를...' 이런 생각으로 나아왔어요. 사역을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늘 기도했어요. 어떤 환경에 처해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수 있었고, 회회적인 믿음은 더욱 굳게 다시 한 번 확신해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회회화를 바탕으로 복음에 대해 깊이 알고 싶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같이 찬양을 할 때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당당히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도착하면 외국어학교도 전도하고 싶어요.

이주희(부서기): 2년 전부터 그저 해외에 나간다는 이유로 선교를 꼭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준비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일을 하러 가는 것'이라고 깨달았어요. 주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시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예비해 주신 영혼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장진규(후회계): 지난번 선교를 통해 내 영혼이 바뀌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은혜 받으러 이번 선교에 지원했어요. 이곳에서 내 안의 많은 문제들을 변화시켜달라고 구했어요. 지난번 사역에선 시각적 기적을 많이 봐서 놀라웠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이번에는 저번 경험들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번 사역보다 주님의 은혜를 적게 느꼈어요. 이번에는 기도와 전도를 양쪽으로는 많이 했

지만 시각적 은혜를 보지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선 좀 아쉬웠지만 대충히 나아갈 수 있었던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김세일(부서기): 주님에 내 평생을 주만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왔어요. 내 개인적인 욕심과 내 새가들을 버리고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했고 순종의 자세를 배웠어요. 순종하러 나가면 평안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엔 거역하며 선교를 준비했는데 주님이 절절하게 평안함을 주셨어요. 저는 욕심이 많아서 주님께 "OO하든 OO해 주세요"라고 했었는데 전도할 땐 영혼만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배가 곯 수 있는 건 전도지 나뉘는 건 일밖에 없고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걸 감사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영혼을 볼 때 기뻐요. 서울에선 게을렀는데 이곳에 와서는 육체적으로 깨어 있어서 많은 시간을 선교에 쓰고 노력했어요. 많은 것 배운 것 같고 주님께 감사해요.

송지훈(의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왔어요. 주님이 팀원들을 사용해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 감사해요. 처음에는 해외에 온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이번 믿음이 생겼어요. 의식을 다 제쳐두고 그저 믿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신기해서 다가갔는데 중간에는 그들 영혼을 생각하며 전도를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게 됐고, 나중에는 요한복음을 읽고 많이 변화되었어요. 서울에 가면 사단이 괴롭힐 텐데, 기도가 되어야, 사탄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싶어요. 힘들겠지만 모든 우선 순위를 주님께 맞추고, 주일은 무조건 지키고 싶어요. 처음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에 확신이 없었는데, 이제 확신해요. 그리고 팀원 모두 선교를 때 가진 목표들을 이루게 된 것 같아 또한 감사해요.

전도 현장에서

그 누구가 아닌, 나를

부끄럼없이 병인 전도의 시작은 전도의 뜨거운 열정도, 거창한 사랑감도 아닌, 타 교회에 다니는 죄인의 강한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말이 싫었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의 불순종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나가지 하시면 우리는 다면 도구가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차라리 내가 하자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병인에서 시작, 간병인, 보조자들에게 <주간충원>을 나눠 주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엔 간병인들의 행태가 심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저는 점점 전하는 복음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가도 영접 기도 때 입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저희가 다음에 다시 오기를 기대하면서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충원 강도대학을 5년 다닌 정세환 님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는 것은 자 유라처럼 짜증났습니다. 이 땅에서 생을 마칠 즈음 혼수 상태에 빠질 때까지 영접하지 않자서 꼭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에 이르러서는 나와 와 그 분께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정신이 되어 '아멘'하며 영접하시고 다음 주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분의 영혼이 분명히 천국에 갔다고 믿습니다.

병원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기쁨과 영광으로 만났습니다. 환한 웃음으로 맞이주시던 일관환 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 시 표현을 표징과 한 손으로 하시는 김영길 님의 그 환한 미소는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

람에게서 받은 상처도 몸시 가슴 아파하던 이영복 님께 그 사람이 변화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이 변해야 한다고 했을 때 큰 눈에서 떨어지던 눈물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고풍사와 당해 제창치료를 받고 있는 김인미 님 <주간충원>에 실린 '물론의 의'를 읽고 한 주내 내내 울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신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지 그 은혜에 눈물방울이 나오지 않다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새벽에 병원 11층 옥상에 올라가 동쪽을 향해 울면서 기도할 때 멀리서 몇몇이 반사되어 반짝이는 십자가를 보며 '얼마나 복이 많으면 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까?' 하며 부러워했는데 그곳이 충원교회이며 자신이 충원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될 줄은 몰랐다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에 감사했습니다. 뇌를 다쳐 온전한 정신이 아닌 조반된 뇌는 복음을 들었을 때 많은 정신으로 돌아와 영접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저는 그 분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걸 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택하심에 감사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지 않고 성경의 인도하심을 없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아 나 또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시작할 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전도가 이제는 그 누구도 아닌 나를 보내심에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부끄럽고 연약한 나를 요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으로 일깨우십니다.

"이 큰 성읍, 느느에는 죄우를 분변지 못하는 자가 심미만 여명이요 육독도 많이 있으나 내가 아가는 것이 어찌 합당하리" (욥 4:11).

그렇습니다.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황 향(집사, 4교구)



새가족부를 수료하여

새로 태어난 기쁨

저는 89년도에 형님과 형수님의 전도로 충현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워 교회를 떠났다가 아주 큰 인생의 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지난해 6월 다시 충현교회의 새가족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새가족부에 나왔을 때는 '내가 과연 6개월의 과정을 수료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마음에 알 수 없는 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가족부를 수료하고 보니 그 동안 주님과 보낸 6개월의 시간이 정말 행복했고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 앞에 내가 다시 태어난 것이 한 없이 기쁨 뿐입니다. 6개월 동안 정말 교회에 못 올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까지 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 주위에는 예전의 저처럼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그분들도 저와 같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권영니 (장년1부)

새가족과 함께

귀한 그릇이 되기를 희망하며

아침에 주간충현을 꼼꼼히 읽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왜 내 귀가 이렇게 순한지 모른다. 출근길에 살펴본 글을 생각하다가 내 눈을 의심하고 내 심장을 의심하고 머리와 가슴을 의심한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라!"는 명령을 순진하게 '되자!'로 받고 있는 나를 의심하는 게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리 쉽게도 내 것이 되리라는 것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터이다. 나의 악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보배로운 피로 인함이라.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어찌 섬기게 하지 못할까? 존귀한 그릇이 되기로 결심하라! 나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라. 믿고 순종하는 아침이다. 어제 저녁의 늦은 귀가로 인한 피곤함도 뒤로 하고.

이렇게 2005년을 살고 싶다. 오늘처럼 순한 귀를 가지고 하루를 일년처럼, 일년을 하루처럼 살고 싶다. 믿음, 그리스도의 피, 순종 등을 어렵게 정의 내리면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하는 무거운 질문을 던지기 일쑤였던 내가, 별로 어렵지 않게 믿음과 그리스도의 피와 순종을 순하게 받아들인다. 이제 기도도 시작하는 일년이 하루처럼, 묵상과 말씀으로 시작하는 일년이 하루처럼 되리라는 오늘 아침의 내 변화가 귀하다. 귀한 그릇이 되기로 한 새해의 변화는 전율이다. 여명이 귀한 이유와 새벽기도의 신실함이 이해가 되는 첫 믿음이다.



양희국(새가족 양육부)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주일은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나 교회로 와요. 그리고 탁아부에서 지내고 유치부로 가요. 나는 유치부에서 가서 친구들과 뛰어놀 생각으로 탁아부에서 예배드릴 때에도 유치부에 갈 시간만 기다려요. 찬양 연습할 시간이 되면 찬양대를 안 하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찬양을 할 때 나도 기쁘게 해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서 있는 것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노력을 하면 조금씩 좋아질 거예요. 유치부에서 장난을 너무 많이 쳐서 예수님께도, 선생님들에게도 괴송해요. 동생들한테도 예쁘게 예배드리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제부터는 예배 시간에 장난도 안 치고 찬송도 기쁘게 부를 수 있게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백민연(유년부)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

나는 새해에는 중학생이 된다.

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 속에도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난 주일은 친구 초청 잔치를 하는 특별한 주일이였다.

친구 2명을 전도했다. 사람들이 길로 보이면 전도를 잘해서

참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본인 사람들의 청탁과 선물에 눈이 멀어서

전도를 했다. 정말 지금에서야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내 마음의 그릇에 욕심이 가득 채워져 있었나 보다.

그뿐만 아니라 소년부에서 설교 시간에 떠들었던 일.

분반공부 시간에 장난쳤던 일, 일부러 성가대 연습 안 간 일.

그렇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 속에 채워져 있는 나쁜 습관이나

욕심들을 버리려고 한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속마음을 보신다.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을 위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 것이다.

나는 아직 어리지만 성가대도 소란적으로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것이다.

또한 내 마음 속에 나쁜 생각을 갖지 않도록 회개하고

고치려고 한다.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설교 시간에는 떠들지 않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들을 것이다.

이제 중학생이 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디가 달라요 다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지민 (중등1부)

대학부를 졸업하며

99년 5월에 대학부 2학년으로 충현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 때가 잊고갈래도 벌써 졸업을 해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에서 대학부에서 보았던 날들을 뺀다면 제 삶에는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저에게 대학부가 정말 소중한 곳이었고 감사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대학부에 처음 왔을 때 저의 몸과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아팠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주님은 팀장님과 조장님을 보내 주셨고, 전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힘들어 할 때 절 끝까지 주시고 울며 기도해 주시던 그 모습을,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믿음의 선배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 주시며 후배들을 위해,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시던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선배가 되었을 때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나도 대학부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절 차근차근 준비시켜 주셨어요.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저에게 주님은 군대에서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군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 주셨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굳건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제후 후 대학부에 돌아와 이전에 결심한 대로 조장과 2년간의 팀장 일을 하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어요. 대학부에서 리더를 하기 전에는 정말 알지 못했던 한 영혼의 소중한 것과 영혼들을 향한 기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리더를 하는 동안 흔들릴 때도 있었고 불교신자인 부모님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주변의 귀한 동역자들과 교역자분들이 절 붙잡아 주셨습니다.

평생에 믿음의 동역자 한 명을 만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전 대학부에서 여러 명을 만났으니 제게 있어 대학부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지요? 지금 대학부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올라올 고3 지체 여러분, 대학부 시절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학부에서 여러분의 비전과 믿음에 대해 고민하며,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항상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떠날 때가 되어서야 대학부가 소중한 곳이었다는 것을 깨우치지 마시고 그 전에 대학부를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김현연(청년1부)

교회탐방 17 청년2부

믿음의 세대를 잇는 다리

청년2부가 변했습니다. 기혼의 조직들을 새롭게 고치고 확장하여 주님의 몸 된 신 교회의 지체로서 그 역할을 더욱 믿 있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년2부는 미혼팀, 기혼팀, 신혼팀, 결혼준비교실 등 네 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새롭게 조직된 팀들을 중심으로 청년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팀장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미혼팀

김지은(집사, 미혼팀장)



결혼준비교실

석택원(집사, 결혼준비교실팀장)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을 위해 8주 과정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각각 신앙 생활을 하던 남자와 만나 부부가 되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대와 만나 현실에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되지요. 지금은 가정의 위기라고 할 만큼 가정의 파괴와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 안에서 가정의 의미에 대해 배우고, 결혼 후 현실적으로 겪게 될 가정 경제, 임신, 태아, 출산 등을 배우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주로 입소문을 통해 많이 찾아옵니다. 결혼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던 예비 신랑과 신부들이 이 과정을 통해 보다 더 구체적이고 견고하게 결혼을 준비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신혼팀

구성영(집사, 신혼팀장)

결혼하고 3년차인 신혼팀에 맞게 됩니다. 신혼팀의 교사들은 모두 기혼자들입니다. 그래서 부부들이 자신들의 고민을 쉽게 토로하며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요. 부부간의 관계부터, 임신, 출생 그리고 시댁 간의 관계 등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결혼을 한 부부들은 말씀을 통해



35세부터 40세까지의 미혼 남녀들이 함께 모여 성경공부를 합니다. 다양한 모습의 지체들이 모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같은 또래이니 많은 것을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으니 참 좋은 시간입니다.

들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구속하려고 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 이런 일에 대해 부원들이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라서 공감대가 매우 큼니다.

기혼팀

최낙은(집사, 기혼팀장)

결혼해서 3년 이상 된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회 시에는 청년 2부 자체 내에 마련된 탁아부에 아이들을 맡기고, 그룹별 성경공부 시간에는 자녀들도 함께 공부를 합니다. 그 시간에는 자체 탁아부 교사들도 모두들 성경공부에 참여해야 하니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지요. 비슷한 결혼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과 모여서 서로 공감대가 큼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정용 새우신 목적을 생각합니다. 때론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 서로를 훈련시키시면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시는 주님을 깨닫기도 합니다.

청년 2부가 교회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 -

조종환(장로)

청년2부는 새롭게 가정을 꾸리거나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는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고 또한 그 사이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이교회를 다시 이루게 되겠요. 청년2부는 가정들이 그 기초부터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청년2부는 믿음의 세대를 잇는 든든한 다리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편집실)

다음 주일 찬송

213장 막보다도 더 검은

작자가 불명으로 되어 있는 곡입니다. 영어 제목이 어색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아 한국인이 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곡자는 윌리엄 제임스 커크패트릭(William James Kirkpatrick, 1838-1921)이 작곡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1절은 "막보다도 더 검은" 죄와 "흰 눈보다 더 희게"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선택을 통해 강하게 대조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을 찬양합니다.

2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슬픔과 근심, 걱정, 탄식이 변하여 기쁨 찬송이 됨을 노래합니다.

3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차림(빌 3:7-8)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만이 가장 중요함을 찬양합니다.

4절은 성도들의 진정한 자람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임과 이 땅에서 우리의 진정한 자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후렴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나갈 때 주여지는 사죄의 은총을 다시 한번 힘있게 찬양합니다.

충현의 성도 여러분! 이 찬양과 같이 오직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원월화)

새·가·족·을·환·영·하·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	유성철	15	청년2부 오정철(15)	16	반서무	19	대학부 한용택(6)	31	정미경	1	청년2부 이희환(1)
2	이선중	19	고등부 박경희(1)	17	문미숙	1	청년1부 최성규(1)	32	조수강	19	외선부 김현배(10)
3	유범수	16	청년2부 최문설(1)	18	방세은	19	대학부 이복순(1)	33	장학민	19	외선부 손진도(3)
4	황지선	10	소망부 강혜경(9)	19	김한기	11	청년1부	34	김태홍	19	외선부 서경자(15)
5	변해진	19	청년1부 이승연(1)	20	김성호	4	청년1부	35	도원	19	외선부 김재남(17)
6	변재희	19	고등부 박술기(3)	21	김대웅	11	대학부	36	비트스텔	19	외선부 김영수(13)
7	박세연	19	청년1부 김정현(1)	22	김세주	11	대학부	37	강병창	19	고등부 강익희(13)
8	김창우	1	청년2부 김근현(1)	23	송영식	12	청년1부 임형세(7)	38	황근우	19	대학부 이재욱(18)
9	이상철	11	청년3부 김영재(1)	24	김지우	4	고등부 오순도(4)	39	나사	19	외선부 최삼기(18)
10	박지현	19	청년2부 정혜경(9)	25	민영환	19	대학부 이보선(1)	40	클라라	19	외선부 이홍호(15)
11	김용경	19	청년1부 김영환(1)	26	권혜은	19	청년1부 정민선(9)	41	예나	19	외선부 전옥선(15)
12	신광철	2	청년1부	27	채희경	13	청년2부 임태희(6)	42	박상규	1	청년2부 우병희(1)
13	Janeshin	2	청년1부	28	남성민	19	청년1부 전태선(1)	43	김정주	4	청년3부 김창현(1)
14	조보선	18	청년2부 임정현(17)	29	김진지	10	청년2부 최재영(1)	44	성경숙	4	청년3부 김창현(1)
15	이민수	14	청년2부 김성택(1)	30	김성준	19	청년1부 김정재(1)	45	유승길	19	대학부 정해리(14)

* 송홍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우대 20부	정원민 신경림 20부	박기근 이우대 20부	류병하 4부	김영환 4부
여국근 20부	김교성 20부	안창덕 14부	나광영 11부	정인호 11부
조수경 3부	고광환 12부	위관장 12부	김인환 13부	장 호 7부
임태민 17부	이희식 16부	최종철 16부	하종철 15부	안치환 10부
정수진 16부	양종욱 20부	이성진 12부	조규호 12부	김경진 12부
이재영 15부	이광준 15부	이광수 15부	김준희 8부	윤수연 조동부
황진성 2부	전성영 9부			

■ 머진도사

정연희 10부	신동자 10부	윤인정 10부	한영준 10부	김연서 2부
홍수애 2부	이우주 2부	김말자 2부	안태순 2부	
조수자 14부	강덕림 14부	최보진 14부	전은희 14부	김영순 14부
김지자 17부	이수경 17부	김정희 17부	이복순 17부	류진경 17부
한성임 17부				

■ 찬양감독 강수연

■ 전일기획자 서문성

■ 전일기획자 김수연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III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